다산포럼

송재소

"마부작침(磨斧作針)"과 "탁수강산"

요즈음 각 정당 대표들의 발언에서 한자어(漢字語) 사용이 눈길을 끈다. 국가의 지도급 인사들이 자신의 위상에 걸맞게 품위 있는 언어를 구사한다는 점에서 일단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좀더 정확히 사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지난 3월 17일 전당대회에서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심정으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마부작침'은 중국 당나라 때 시인 이백(李白)의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이백이 젊었을 때 공부를 하다가 학업을 완성하기 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에서 노파가 절굿공이를 갈고 있는(磨杵)것을 보고 그 까닭을 물으니 "바늘을 만든다(作針)"는 것이었다.

이 말에 느낀 바 있어서 이백은 정진하여 학업을 완성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고사의 정확한 표기는 '마저작침(磨杵作針)'이어야 한다. 물론 '마부작침'이라 해서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고사에서 유래된 성어(成語)를 정확히 인용할 필요가 있다.

또 이 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뜻보다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뜻에 더 가깝다.

이회창 대표는 또 같은 날 대표 취임 연설에서 이런 말도 했다. "'천지는 만물이 머무는 여관이요, 시간은 영원한 나그네'라는 말이 있다. 그 나그네길에 제가 선진당과 조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 대표가 인용한 구절은 역시 이백의 유명한 글 '춘야연도리원서(春夜宴桃李園序)'의 첫 대목으로 원문은 "夫天地者 萬物之逆旅 光陰者 百代之過客"이다.

그런데 다음에 곧 "浮生若夢 爲歡幾何"(뜬 인생이 꿈과 같으니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구절이 이어진다. 그러므로 이 단락은 '더 넓은 천지간에 살면서 시간은 머물지 않고 나그네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데 기껏 백 년도 못 사는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겠는가'로 해석된다. 이렇게 볼 때 "그 나그네길에 제가…" 운운한 이 대표의 말은 이백의 글의 내용과는 좀 동떨어진다는 느낌이 든다.

지난 3월 22일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4대강 공사로 금수강산 맑은 물이 탁수강산이 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보도를 읽고 나는 깜짝 놀랐다. 후에 확인해 보니 정 대표는 "(금수강산의) 그 '수'가 물 수(水)는 아니지만…"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다. 그러나 '금수강산'과 '탁수강산'을 대비시킨 표현을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내가 이 대표와 정 대표의 말에 트집을 잡으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흔한 지도자급 정치인의 '막말'과는 달리 품위 있는 언어를 구사하려는 두 사람의 자세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다만, 그러한 자세를 계속 유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약간의 충고를 했을 뿐이다. 아울러 이 기회에 우리 문화의 뿌리인 한자, 한문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성균관대 명예교수·전통문화연구회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설

대북 강경제재 국민 불안심리 최소화 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해상교통로 이용 불허, 남북 간 교역과 교류 중단, 유엔안보리 회부 등을 선언했다.

강력한 책임 추궁과 경고를 담은 이 대통령의 담화는 적절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호전적이고 위협적인 행위를 중단하도록 촉구하면서도 군사적 조치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균형감과 절제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도 이번만큼은 천안함 사태의 심각성과 한국 정부와 국민의 결연한 대응의지를 '오판'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대북 강경제재가 몰고 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치밀한 대책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북한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이 있어야 한다. 남유럽국가의 재정위기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리스크'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내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설상가상의 형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 간의 지나친 대결구도로 인한 국민의 불안심리 고조도 문제다. 실제로 남북 간에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전쟁까지도 불사해야 한다는 일부 보수세력의 위험한 주장은 국민의 불안감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중하면서도 신뢰성 있는 대응책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은 단호한 대북제재 못지 않게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예식장들 '조건부 예약' 횡포 해도 너무한다

결혼 성수기를 맞아 광주지역 예식장 업계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예식장 대부분이 예식장 내 뷔페 식당에서 하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식장을 대여하고 있어 혼주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예식장의 경우 식사 인원이 일정 수 이상 넘지 않으면 주말 피크타임에는 예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식당을 이용하더라도 주말 오전에는 '최소 200명 이상' '황금타임'인 주말과 일요일 낮 예식은 250명 이상이 돼야 예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뷔페 식당의 '바가지' 상혼과 무성의한 음식 제공 등도 불만을 사고 있다. 예식장의 대부분이 하객 1인당 식사비용으로 2만4000원~2만6000원을 요구하고 있어 일반 뷔페에 비해 비싸다는 지적이다.

또 식사 메뉴를 '뷔페'로 정해놓은 탓에 혼주들이 제공하고 싶은 음식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도 불쾌한 일이다. 음식의 맛과 질도 일반 뷔페와는 차이가 있으며 음식이 부족해도 채우지 않아 '푸대접'이라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한마디로 자녀들 결혼을 시키려면 의무적으로 식당을 이용하되, 음식 먹을 사람은 몇명 이상돼야 하고, 가격은 정한대로 내라는 것이다. 예식장 업계가 이 정도라면 얄팍한 상술을 넘어 횡포를 부리는 일이다. 혼주나 하객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울며 부페먹기'식이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관계 당국에서는 무엇을 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식장들이 예식장과 식당업 허가를 동시에 받아 운영하더라도 조건부로 예약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지속적이고 엄한 지도·단속을 펴는 것만이 횡포를 막는 길이다. 일생에서 가장 큰 행사인 결혼식이 모두에게 부담을 안긴다면 두고두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NGO 칼럼

백희정

'가정', 정상과 비정상 사이

가정의 달 5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감사하고 기념하고 챙겨야 할 날이 5월에 집중되다 보니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백화점 특수'라는 기사를 쉽게 볼 수 있고 관련 기관·단체에서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풍성한 행사와 이벤트를 준비한다.

그러나 가정의 달이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한다는 의도가 무색하게 시민들은 아이들과 부모님께 드릴 선물과 용돈의 액수가 가장 큰 고민이 되어가고 있고 있다. '위기 가정' '가족 해체'라는 꼬리표 달기로 말이다.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는 부부의 날 또한 이러한 다양한 가족이 소외되고 배제된 채 건강한 가정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건강가정지원법에서 말하고 있는 '건강한 가정'을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건강한 가정을 이성애 가족을 중심에 두다 보니 가족 해체를 국가적 위기로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사회적 갈등에 부딪히게 된다.

지자체에서도 부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거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를 여는 것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자체의 가정의 달 행사를 보면 아직까지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가족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가정은 사랑·보살핌·대화·합의 등 애정에 기반한 결합임과 동시에 폭력과 갈등·경제적 논리를 배제할 수 없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혼율과 동거혼은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가구주 세대·한 부모 가족·비혼(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선택된 삶의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로, 독신에서부터 이혼 및 사별, 혈연이나 입양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공동체 생활 등 결혼하지 않는 삶의 모든 방식) 1인으로 구성된 가족·동성애자로 구성된 가족·독거노인의 증가 등 우리는 이미 '정상가족'틀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가족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족 유형의 출현(1인 가구 16%, 부부가구 15%, 한 부모가구 10%, 여성가구주 22% 등)을 가족의 변화로 보지 않고, 가족의 위기로 보고 있는 우를 범하고

예를 들어 가정폭력과 친족 성폭력,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되기보다는 피해자의 가정복귀 정책으로 되면서 제2·제3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이성애 중심의 사고와 정책이 결국 이혼과 가출의 증가로 그들이 우려한 '가족 해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다양한 가족 구성, 변화된 가족 형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받는 수혜대상자임과 동시에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원을 받는 것과 사회적 시선은 달라야 한다. 대안적 가족 형태의 실험이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고 가족 밖에서 친밀함이나 상호 깊은 우애와 협동을 공유하는 이들도 있다.

앞으로 가정의 달에는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비혼 가정을 운동장에 모이게 해서 이벤트를 하기에 앞서 '가정'이라는 틀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가·어떻게 소외되고 있는지·이들을 위해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할 것 같다.

〈광주여성민우회 사무국장〉

기고

김필식

U대회, 대학생과 시민이 주인공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꺼번에 찾아왔던 지난 4월, 지인들이 광주에 왔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목엔 봄꽃이 흐드러졌고, 나무 그늘마다 꽃 잔디가 화사했다. 경상도 출신인 그네들은 광주가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인 줄 몰랐다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이상기온만 없었더라면 더 고왔을 길이다. 어깨에 절로 힘이 들어갔다.

꽃길 말고도 광주에는 자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민주주의를 이끌어낸 자랑스러운 역사와 풍류를 즐기던 예향의 면모, 음식 맛에 이르기까지 광주가 품고 있는 자랑거리는 무궁무진하다.

이 아름다운 빛고을을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2015년에 개최되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다. 우리나라 5대 도시 중 유일하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국제대회를 치러보지 못했던 광주에게 U대회는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다지는 중요한 기회가 아닐 수 없다.

특히 2013년 대회 유치에서 한 번 고배를 마신 후 얻은 성과라 이번 U대회에 거는 기대는 더욱 크고, 기대가 큰 만큼 더욱 철저하게 대회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오는 24일이면 광주가 U대회를 유치한 지 1년이 된다. 지난 1년 동안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에 근거해 조직위원회와 시민운동추진협의회가 발족했으며, U대회 세제지원법도 국회를 통과해 재정 확보 기틀이 마련됐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왠지 허전한 느낌을 지울 길 없다. 주객이 전도된 데서 오는 낯설음이랄까?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대학과 시민들이 마치 관객인 양 '연극이 무대에 오르면 구경 가겠다'는 태도로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든다.

유니버시아드(UNIVERSIADE)는 대학(University)과 올림피아드(Olympiad)의 합성어로, 2년마다 한 번 씩 열리는 대학생들의 종합 스포츠대회다. 문자 그대로 대학생들의 축제다.

전 세계 170개 국가에서 17개 종목 1만5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단이 광주에 와서 기량을 겨루고, 우정을 나눈다. 2015년에는 FISU 포럼, 세계대학총·학장회의, 집행위원 선거까지 동시에 개최돼 역대 최대 규모인 2만5천여명이 방문할 것이라 한다.

이 축제의 장에서 광주·전남의 대학생들이 전 세계 대학생들과 교류하며 인류 공동의 가치를 깨닫고, 광주 전남 대학들이 세계에 이름을 알리고, 광주가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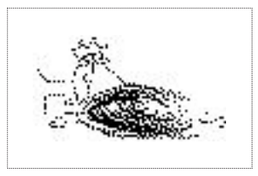
관(官) 주도 아래 이 모든 일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시대다. 2002월드컵 때 그러했듯 시민들과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유쾌한 축제를 만들어낼 수 있고, 광주도 위대한 무형의 자산을 얻게 된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자연스럽게 계곡에 스며들어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어내듯이 말이다.

U대회는 대학생과 시민이 주인공이다. 주인공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U대회 5년을 앞둔 우리 광주의 과제다.

〈동신대학교 이사장〉

無等鼓

태풍



올해 지구촌은 악천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본래 기상은 변화무쌍하지만 유독 2010년에는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겨울부터 4월까지 폭설과 이상저온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농작물 생장이 순탄치 않았다. 올 봄 미국 동부에서는 홍수로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영국에선 때아닌 폭설이 덮쳤다. 중국 남부에서는 심각한 가뭄으로 고통이 계속되더니 우기에 접어들기 무섭게 홍수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여름이 시작되면 가장 무서운 게 태풍과 집중호우다. 한 번 쓸고 가면 인명과 함께 심각한 재산피해를 몰고 오는 태풍과 호우는 공포의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태풍(Typhoon)은 열대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저기압 가운데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해 아시아 동부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일컫는다. 태풍은 한국을 비롯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미크로네시아 일부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

지역 구분에 따라 서인도제도와 멕시코만에서 발생하는 열대성저기압은 허리케인(hurricane), 인도양에서 발달한 열대저기압은 사이클론(cyclone)으로 불린다.

태풍은 모든 것을 앗아가지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태풍이 바닷속이나 강의 밑바닥을 뒤집어 생태계를 대청소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게 기상학자들의 견해다. 또 대기권의 공기를 정화시켜 주기도 한다.

24일 기상청은 올해 우리나라에 2~3개의 태풍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2008~2009년에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비켜가 '무태풍의 해'로 기록됐다. 그러나 기상청의 전망을 감안하면 올해는 태풍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예감이다.

태풍은 생태계 정화라는 순기능도 지니고 있지만 무엇보다 피해예방이 우선이다. 일찍부터 철저하게 대비하는 게 상책이다. /박치경 사회1부장 unipark@

산업재해 부르는 '안전 불감증' 정부차원 대책 절실

작년에 한 지인이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다. 그분은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 다니고 있었는데 맡은 분야가 프레스 작업 공정이었다.

이분은 작업중에 프레스에 에러가 생겨서 작동이 안 되자 전원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프레스로 다가갔다. 그런데 그 순간 이분을 철판으로 인식한 프레스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바람에 프레스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했다.

프레스는 사람이 다가가면 자동으로 급정지하는 장치가 있다. 하지만, 이 장치는 이날 해제된 상태였다고 한다. 이 장치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그분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지만 이마저도 꺼 놓았기 때문에 유명을 달리하신 것이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자동차부품공장뿐만 아니라 프레스 작업을 하는 많은 공장이 작업 속도가 늦춰지지 않도록 평소 프레스 안전장치를 해제시켜 놓는 경우가 우리나라 공장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게 안전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때문에 개인은 안타까운 목숨을 버리고, 그 가족은 가장을 잃게 된다.

또한, 그로인해 들어가는 보험료 손실과 사회적 비용은 우리 국민 모두의 부담 아닌가.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안전 후진국'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정부와 산업안전관계기관에서는 더 이상 이런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기원·광주시 서구 세하동

음식점 종원업에게 담배냄새…'에티켓' 지켜줬으면

얼마 전 아이들과 함께 음식점에 갔는데 차를 주차한 한 뒤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저만치서 담배를 피우는 주방 직원을 목격했다. 마음속으로 한두 번 보는 일이 아니라서 그냥 지나치며 못 본체 했다.

식당 홀 안으로 들어가 보니 손님들이 들어차서 정신이 없었다. 음식을 주문 한 뒤 한참 후에 음식을 가져온 사람은 처음 식당에 들어올 때 본 담배 피우던 직원이었다. 바쁘니까 주방에서 아예 음식을 들고 나온 듯했는데 "음식 나왔습니다." 하면서 내놓는 그에게서 담배 냄새가 확 풍겼다.

참고 그냥 넘기기에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렇다고 내가 한 개인의 흡연의 자유마저 제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니 별수없었다.

식당 종업원들과 사장님들께 당부드리고 싶다. 담배 피우는 거야 어쩔 수 없다지만 손님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피우고, 또한 피우더라도 가급적 칫솔질을 해야 할 것이며, 가능하면 손님들이 많은 시간대에는 담배도 자제하는 게 손님들을 대하는 식당의 매너 아닐까 한다.

▲이준·광주시 서구 마륵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